

보도일시	배포 시	배포일시	2025. 04. 25.(금)
작성부서	경영기획실 기획조정부	담당자	조은미 부장(02-6908-8540) 조혜원 과장(02-6908-8565)
배포부서	고객지원실 대외협력부	담당자	김철현 부장(02-6908-8240) 이강석 과장(02-6908-8545)

한국재정정보원, 노동이사제 도입 및 노사 간담회

개최하여 노사 상생 경영에 박차

- 기관 최초 노동이사 선임 통해 노사 협력·소통 활성화 -

- 한국재정정보원은 기관 최초 노동이사제 도입 및 노동이사 선임에 따라, 4월 25일 노사 상생 간담회를 개최했다.
- 한국재정정보원 제4대 윤석호 원장은 취임('25.3.12.) 이후, 노사 간 소통 강화와 근로자 경영 참여 확대를 통한 노사 상생 경영을 실현하기 위해 노동이사제 도입을 신속하게 결정했다.
- 신입 노동이사는 근로자대표의 추천을 거쳐 기획재정부의 임명을 통해 초대 신숙현 노동이사가 선임되었다. 임기는 2025년 4월 21일부터 2027년 4월 20일까지 2년이다.
- 이날 간담회는 노사 비전을 공유하고 노사 상생과 협력의 의지를 다지는 자리로 원장, 부원장, 신입 노동이사, 노동조합 지부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.
- 윤석호 원장은 “노동이사제 도입을 계기로 우리 원 직원들의 의견이 더욱 폭넓게 경영에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”라며, “앞으로는 매월 노동이사, 임원, 노동조합 지부장이 함께하는 정기 간담회를 통해 노사 간의 소통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한 상생과 협력의 조직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”라고 말했다.

- 한편, 신숙현 초대 노동이사는 “노측을 대표하는 임원으로서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, 노사 협력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”라고 밝혔다.
- 노동이사제는 3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 중 근로자대표의 추천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자를 비상임이사로 임명해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다.
- 한국재정정보원은 2025년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노동이사제 도입 대상 기관이 되었으며, 이에 따라 작년 11월부터 관련 내규 정비와 내·외부 자문, 노사협의 등을 거쳐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며 노동이사제 도입을 추진해 왔다.